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 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마세요.
- 성주 도솔암 주지 지혜 스님

제848호 2011년 8월 10일 수요일 (음력 7월 11일 · 불기 2555년 · 주간)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조계종 화쟁위원 등, 노사 대화 재개·불자 관심 호소

“김진숙 씨 살리는데 우리 사회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
2년간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3000여 명 해고로 비롯된 한진중공업 사태의 문제 접근 및 해결 방법을 두고 노사, 여야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화쟁위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 노사가 조건 없이 만나고 대화하도록 해 달라. 화쟁위는 앞으로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민주·한국노총 등을 찾아 호소문을 4일 전달했다. 또, 부산지역 불교계와 연대해 합동법회 봉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 정부가 중재자 돼야

화쟁위는 입장에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 회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사태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 파국을 막고 극단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만은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쟁위 실무위원장 범안 스님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중단은 해어진 사람과 해후하는 칠석(7일), 자유와 해방을 배경으로 한 백중(15일) 법회 등을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실상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월 28일, 15개 불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용기)도 성명서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35m 크레인 위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1월 6일부터 2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쟁위는 “지난 해 노수 스님을 떠나보냈던 불자들은 더욱 남다른 심정으로 김 씨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씨가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내려오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고 호소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사측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중재자로서 나설 것 >불교계는 한중 문제와 유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8월 3일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을 비롯한 53명의 스님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사태 등 시국 현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진중공업은 1989년 박창수 씨의 의문사, 2003년 김우 씨 자살 등 잇따른 비극의 역사를 갖은 곳이다.

화쟁위는 “크레인 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불자들의 당연한 서원이며 민주시민의 책임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야 한국 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53인 승려들의 시국선언은 선제동자의 구명행을 상징한다. 결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사태 등 국민들의 고통을 불교인으로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오늘 선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 02-3663-6777 www.nhwa.com



보리수 아래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떠나기 시작했다. 시원한 계곡의 그늘과 파도치는 바다도 좋지만 풍경소리 들려오는 사찰의 그늘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8월 1일 김제 금산사 마당의 보리수 그늘 아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있었다. 먼 풍경소리가 시원한 바람을 실어오고, 산새 소리가 시름을 몰아간다. 울 여름은 보리수 그늘에 부처님처럼 앉아 한 더위를 끊어내 보자.

박재원 기자

봉은사, 국회서 북한사찰 사진전

8월 10~11일, 北 전역 60여 곳 사찰 사진 전시

북녘의 우리 절과 절터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10~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분단 66년, 북녘의 불교 문화 유산’을 주제로 북한 전통사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의 사진들은 북한 전역 60여 곳 사찰과 6곳 폐사지의 전경과 유물 사진 6500여 점 가운데 60여 점을 엄선한 것들이다. 봉은사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및 민족화해협력역량회의와 2009~2010년 1년 여에 걸쳐 촬영한 이 사진들을 추려 지난 6월 <북한의 전통사찰>로 펴낸 바 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작은 가교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도적 사업과 함께 종단이 진행하는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0면

조동섭 기자

8월 11~14일 만해축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자유 사상 선양을 위해 열려 온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를 일원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제15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축전시인학교 등 5개 부문의 문예행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제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축전 전야제와 대동축구대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12일에는 입제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군게이트볼대회, 7080가요제, 제13회 만해백일장 등이 열린다.

조동섭 기자

도법 스님, 김진숙 씨 위한 108배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8월 4일 정부 과전종합청사 등을 방문해 한진중공업 사태 원만 해결을 촉구하는 108배를 올렸다.

도법 스님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스님의 면담을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계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님은 전경련, 민주·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108배 후 호소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스님의 호소문 전문이다.

김진숙 씨가 살아내려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국민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고, 특히 영향력이 큰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하길 간곡히 청합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주가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작품이 생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자존심, 명예, 돈, 권력, 재산, 진보·보수, 자본가·노동자 입장 등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고 익힌 지식이 틀리지 않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책, 신문, 방송에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보고 듣고 알게 된 지식이 참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청합니다. 부디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2011. 8. 2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848호 CONTENTS

| | |
|--------------------------------|-------|
| 백양사 아담법석 입제식 | 2 |
| 특별기고·불교 출판 대안 모색 | 3 |
| 가야산골포장 없던 일로 명진 스님 국경원·조선일보 비판 | |
| 현장속으로 | 5 |
| 우면산 관문사 복구현장 | |
| 상반기 결산·사찰④ 해인사 | 8 |
| 여름특집·지리산 명상 | 12~13 |
| 여름특집·책세상 | 22~24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윤장대 인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